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 출범식

전북 중소기업계, 민간 중심 정책협의체 결성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승중)는 7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주요 중소기업 23개 단체가 회원으로 동참했으며,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이하 중단협) 설립 취지와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생이슈에 대해 협력대응하기로 했다.

중단협은 도내 중소기업 애로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대변하는 정책 플랫폼 부재로 인해 중소기업의 정책 영향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결성되었다.

분기별 정기회의 등을 통해 운영하며, △공동 정책과제 발굴 및 정부·지자체 건의 △회원 간 네트워크 및 정보공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공헌 등 단체간 협업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진 중단협 회장은 “이제는 도내 중소기업계가 하나가 되어 정책 대응과 협력을 이끌어야 할 시점이다. 중단협이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참여 단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업종과 현장 목소리를 담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7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전북중소기업단체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농협 전주시지부, 폭염 대비 이동노동자 등 무더위 쉼터 운영

농협전주시지부(지부장 하양진)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이동노동자와 무더위 취약계층에게 휴식 공간 제공을 통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오는 9월말까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전주지역은 한낮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등 역대 가장 더운 6월과 가장 이른 열대야를 기록하면서 한증막 같은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무더위 취약계층인 이동 노동자와 고령어르신 등은 휴식 장소 부족 등으로 온열질환 위험이 날로 커지는 시기이다.

농협전주시지부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친 이동노동자와 무더위 취약계층 분들이 폭염에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1층 은행 영업점에 무더위 쉼터를 조성하고 시원한 생수 등의 음료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하양진 지부장은 “계속되는 이른 폭염에 지친 이주노동자 및 고령어르신 등 전주시민 분들이 무더위로 지칠 때 부담 없이 농협전주시지부를 방문해 잠시나마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 경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3분기 440억원 규모 지원 시작

창업·경쟁력강화자금·경영안정자금·벤처기업 육성자금 등 자금 신청 순차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7일부터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3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육성자금은 총 440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자금별로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50억원, 경영안정자금 25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40억원이 지원된다.

기업별 융자 한도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운전자금) 최대 15억원,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최대

7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시설·운전자금) 최대 6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금별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2.82%,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1.82%로 협약금리에 따라 변동되며, △경영안정자금은 은행 대출금리에서 도의 이차보전을 2~3%를 차감한 금리를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2025년 3분기 자금 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https://jok.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현장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자금별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다. 창

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7~11일, 경영안정자금은 14~18일,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21일부터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접수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홈페이지, 경진원 홈페이지, 또는 통합관리시스템 내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변경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063-280-3228) 또는 △경진원 자금지원팀(063-711-2021~2, 2063)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상근 기자

구역전기 안전성 강화... 전기안전공사 워크숍 개최

구역전기협회 회원 등 참여... 사고 사례 공유 등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4일 서울가든호텔 그랜드홀에서 ‘구역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및 전기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구역전기협회와 함께 진행한 이번

워크숍은 전기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협력방안을 찾고 구역전기설비 관리자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구역전기사업은 공공분야에 속한 열과 전기 등 에너지 공급을 특정 지역

에 한해 민간사업자가 맡는 경우를 뜻한다.

구역전기협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다크데이터를 활용한 플랜트 관제시스템 개발 △전력케이블 접속재 안전관리를 위한 진단 및 유지보수 관리방안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공사는 최근 증가하는 전기설비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과 함께, 구역전기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례를 공유해 큰 관심을 받았다.

구역전기협회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이 필요했던 시점에서 이번 워크숍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농진청, “대파 뿌리째 필름 포장하세요”

저온서 5주 저장 결과, ‘상’ 등급 92.6%... 5주 지나도 신선

농촌진흥청은 대파를 수확한 뒤 뿌리째 필름 포장하면 저장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대파는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해당 품목이다. 기후에 따른 작황 변동성과 가격 급등락에 대응, 정부에서 비축과 방출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정부가 2017년 도입한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은 주요 채소류의 가격 변동 폭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키는 사업이다.

보통 수확한 대파는 선별장으로 보내져 0도(℃)에서 24시간 예비냉장한 뒤 뿌리에 묻은 흙과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어 뿌리를 5mm 남기고 자르거나, 자르는 과정 없이 뿌리째 그대로 포장한다.

또, 중간 부위를 끈으로만 묶거나 구멍이 뚫린 필름에 담아 출하하기도 한다.

연구진은 대파 수확 후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 뿌리를 잘라낸 것과 남긴 것, 필름으로 포장한 것과 끈으로 묶은 것 총 4개 실험구로 나눠 1도(℃)에서 5주간 저

장하며 품질 변화를 비교했다.

그 결과, 뿌리째 필름 포장한 대파는 뿌리를 자른 후 끈으로 포장한 대파보다 수분 손실이 10.4% 줄고, 잎이 노랗게 되는 황화 지수와 시들 지수가 각각 0.52, 0.66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특히 뿌리를 자르지 않고 필름 포장한 대파는 ‘상’ 등급이 92.6%로 나타나 61.1%~69.6%에 머문 다른 처리 구보다 최대 23% 포인트 높았다.

대파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시들고, 줄기 조직이 연해지는 이유는 뿌리를 자를 때 생긴 상처가 반응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필름 포장하지 않고 끈으로 묶으면 대파 무게 감소율이 더 커져 등급이 낮아진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임종국 과장은 “이번 연구는 대파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작업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다”라며, “이 기술이 대파 출하 기 유통 과정과 비축 물량 품질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노란우산 창기고·내수경제 살리고’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자 대상 프로모션 진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민생경제 회복 캠페인의 일환으로,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자 대상 ‘노란우산 창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프로모션을 7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국내 소비촉진을 위해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자 전원에게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중기중앙회가 발행하는 모바일 소비 쿠폰으로 전국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장님들의 퇴직금 제도라 불리는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무등록소상공인이 가입 대상이다. 2007년 제도 출범 후 지금까지 약 89만4,000명에게 9조4,000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해 온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가입자는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금을 납부하고 폐업, 노령, 사망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복리이자를 적용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한 부금은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장님의 절세전략’으로 손꼽힌다.

간금 지급이 필요할 땐 부금 내 대출 이용도 가능하다. 현재 대출 이자율은 3.7%이고, 폐업 공제금 지급이자율은 3.3%로 예대미진은 0.4%p에 불과하다.

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마련돼 있다. 국내 10개 리조트를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고 법률·세무·노무 등 경영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 후 2년간 무료 단체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프로모션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